

소녀상과 의자

박선희

단발머리 소녀가 촛불로 만든 수평선
의자는 오래전부터 옆에 있었다
기억의 살 발라내고 열쇠가 채워졌다

뜨거웠던 사람들
느릿느릿 속도를 늦춘다
의자는 오늘도 깨끗하다

소름 끼치는 사진과 기사를 보며
하루 종일 침묵했다
새가 앉아 있어도 요동치지 않았다

문 없는 방
머리에서 발까지 인사가 전해진다
잘 가요
아무도 없는 거리
방으로 들어가지 못한다
발이 박혀 있다
옷깃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
눈에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는다
밤이 세차게 들이쳤다

내일은 집으로 돌아가야지